

■ 2018년도 2차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도서선정 심의 총평

- 사 업 명 : 2018년도 2차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소설)
- 회의일시 : 2019. 1. 30(수) 10:30~
- 회의장소 : 문학나눔 회의실

이번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소설 부문에서는 전체 응모작 272종 중 1차 선정작 총 75편이 후보에 올랐다. 1차 선정을 통과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고, 세 심사위원들이 각자 또 함께 오랫동안 고심하였다.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견이 없었으나, 부득이 탈락시켜야 하는 작품들을 놓고 여러 논의가 이루어졌다.

소설 부문에서는 문학이나 출판의 위기라는 시장의 담론과 달리, 다양하고 우수한 작품이 꾸준히 출판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성과 서사가 세련된 동시대 작품이 많아 심사 과정에서 보람이 있었다. 문학나눔 사업을 통해 한국 문학의 발전이 독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

장르 면에서는 SF의 약진이 주목할 만 했다. 2차 심의 후보에 오른 SF 대부분이 작품성과 가독성 면에서 고르게 우수하여 큰 이견 없이 선정되었다. 그 외에는 개인적 경험에 바탕을 둔 작품이 아주 많았는데, 문학적 수준이나 파급효과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또한 다수 심사대상에 내재해 있던 비윤리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관습적이고 차별적인 표현과 전개가 아쉬운 작품이 많았다.

한편, 중단편 길이의 작품 한 편을 단행본으로 발행한 것은 인상적인 시도였으나, 단편 한 편과 여러 중단편을 수록한 소설집 혹은 장편을 같은 무게로 평가하고 선정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또한 출판사별 종수 제한 때문에 아주 훌륭한 작품을 부득이 선정하지 못하여 아쉽기도 했다. 차후 신청도서기준 및 심의기준을 정할 때에는 이런 고민이 건설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한다.

문학나눔도서보급사업 심의위원 일동